

## 지방자치·종합

## 4·11 순천·강진·무안 단체장 보선도 치열

4·11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순천·강진·무안 기초단체장 선거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들 지역 시장·군수들이 19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해 공직을 사퇴함에 따라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 일부 지역은 출마예정자가 10명이 넘는 등 선거전이 과열양상을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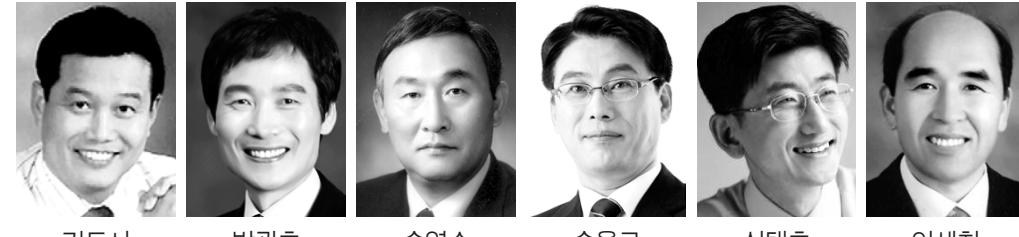
## 출마예정 10여명…후보간 합종연횡 변수

## 순천시장

시장 선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출마 예정자는 10여명. 경쟁률부터 치열하다. 재선의 노관규 시장이 국회의원 출마로 자리를 비우면서 그동안 노 시장에게 폐했던 후보군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우선 조충훈(58) 전 시장이 최근 출마기념회를 갖는 등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고,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장을 받았지만 노관규 시장에게 석패한 조보훈(64) 전 남도 정부부지사도 설욕을 벼르고 있다.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노 시장

에게 패했던 이은(60)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한 신택호(47) 변호사, 기도서(48) 전 남도의회 의원, 송영수(63) 순천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윤병철(50) 전 순천시의회 의원, 최종만(56) 광양 만제자유구역청장, 허정인(54) 전 남지자 특보, 송을로(49) 치과원장 등도 후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영식(59) 민주당 순천지역 위원장 대행, 박광호(49) 전 순천시의장, 안세찬(49) 전 시의원, 이창용(61) 시의원(무소속)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후보군들은 많지만 예비 후보자와 총선 후보 간 합종연횡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향후 선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민주통합당 후보만 7명…경선이 사실상 선거전

## 무안군수

후보군으로 현재 전직 행정관료와 정치인 등 6~7명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철주(54) 전 전남도 교육청 비서실장, 김호산(49) 무안황토고구마클러스터사업단장, 나상욱(61) 목포무안신안축협조합장, 박만호(59) 전 전남도 행정자원국장, 양승일(67) 전 전남도의원, 진상열(59) 무안군청 지역개발과장 등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약사출신인 김 전 비서실장은 전남도 교육위원회와 도의원 등 다양한 정치 경험이 있으며, '혁신과 통합' 전남 공동대표를 맡은 김 단장은 농민운동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주민과 호흡한 점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퇴직 이전부터 지역에서 보폭을 넓혀온 박만호 전 국장도 최근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진 전 과장은 38년간을 무안군청에서 재직하며 군민의 애환을 몸소 체험한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5대 무안군수 선거



## 강진군수

현재 민주통합당 후보들만 7명이 난립하고 있어 당내 경선이 사실상 본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진군수 보선에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섰다가 황주홍 군수에게 패한 강진원(52) 전 전남도 기업도시 단장을 비롯한 이성남(56) 광주지방조달청장, 김주열(57) 전남개발공사 사장 등 전·현직 관료 출신들이 바탕 민심을 훑고 있다.

여기에 일찌감치 고향 강진으로 내려가 보폭을 넓히고 있는 서채원(50) 전 광주시의회 의장과 차봉근(65) 전 전남도의회 의장, 곽영체(64) 전남도의원 등 지방의원 출신들도 가세해 경합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탄탄한 능력 조직력을 갖춘 김근진(56) 강진농협조합장도 출마를 공식화했고, 육군 대령으로 예편하는 박원철(55) 서정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도 통합민주당 경선에 뛰어들었다.

